



머리글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은혜로운 시기이며 거룩한 시기인 사순시기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회개의 삶이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비록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삶을 돌아보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인간 안에 하느님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기에 하느님께 돌아갈 그 날을 그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하느님께 둘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회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는 부활의 삶으로 넘어가게 하는 은총의 길을 보여줍니다.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함께 매달려 있던 한 죄수를 통해 회개의 삶을 전해 줍니다.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죄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순시기를 보내며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복된 날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롭고 거룩한 시기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제11차 정기총회



1월 23일(화)~25일(목) 목포에 있는 한국레지오마리아기념관에서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제11차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교정사목 사제, 수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2024년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의 방향과 수용자들, 출소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도움을 모색하며 친교를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레미사



2월 5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레미사가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정민하 올리오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정민하 신부는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물려드는 복음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 술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간절한 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낫게 해주면서 믿음을 통해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뜻한 인정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워크숍



2월 6일(화)~7일(수) 성 앵베르센터에서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15개의 위원회 사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사목연구소장 양주열 베드로 신부의 ‘시노드〈성령 안에서 대화〉’ 주제로 나눔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사회사목국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못다 한 사랑

한명선 아퀼리나 _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봉사자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계시는 구치소에서 봉사를 한 지도 어느덧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봉사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용자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운 사랑의 꽃다발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편견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하기에, 한때의 유혹과 분노를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 수용자들의 가장 큰 실수일 것입니다. 제 마음속의 편견은 구치소 미사 때 한 외국인 형제님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빠르게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성체를 모신 후 제대 밑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하느님을 향한 형제님의 마음과 그 형제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장소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제가 이 사랑의 공간에서 봉사할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봉사를 하고 있던 평범했던 제 일상에 얼마 전 견디기 힘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40년을 함께 해 왔던 남편이 갑자기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고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평소 건강했던 남편이었기에, 가족들의 충격은 더욱 컸고, 헤아리기 힘든 하느님의 의중에 원망과 의구심이 솟구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임종 직전 절망에 빠진 가족들을 보면서 남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는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픔과 그리움으로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마지막으로 남긴 남편의 말이 마법처럼 제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바라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이 슬픔을 이겨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처음 교정사목 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많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처럼 봉사를 향한 제 의지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고, 이런 제 진심이 결국에는 남편의 마음에도 닿게 되어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우려와는 다르게 구치소 봉사를 다녀올 때면 평소보다 더 활력이 넘치고 밝아지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의 염려는 격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아내인 제가 구치소 봉사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봉사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준 남편이 이제는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났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구치소에서 남편에게 못다 한 사랑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제 남편도 하느님도 진심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제 사랑의 마음이 다할 때 주님께서 저 또한 천국으로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게 되지만 하느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



사울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사울은 히브리어로 ‘구함’, ‘요청함’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여 선택된 인물다운 이름입니다.

여인들은 흥겹게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그날 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1사무 18,7)

성경의 이 구절 이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시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였습니다(1사무 18,12; 18,16; 18,29). “두려워져서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18,29)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다윗에 대한 심한 질투, 미움에 휩쓸려, 자신의 감정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 사울은 그저 다윗과 비교하는 여인들의 노래에 열등감을 느끼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상대방을 질투하고, 미워하며, 원수처럼 생각하여 그 감정에 치우쳐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 듭니다. 창을 다윗에게 두세 차례 던지고(1사무 18,11; 19,10), 죽이려고 다윗이 누워있다고 생각된 다윗의 침상째 들고 오게 하기도 합니다(19,16). 심지어 다윗을 두둔하는 아들 요나탄을 죽이려고 아들에게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20,33).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여러 곳으로 피난을 가는데, 사울은 다윗을 숨겨주었다고 그가 머문 고장 사람들 85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계속 쫓자, 다윗은 당시 적대국이던 팔레스티아 땅으로 망명까지 갑니다(1사무 27,1).

사울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비해, 다윗은 비록 사울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지만, 그 미움의 감정에 갇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반대로 사울을 습격할 기회가 두 차례 있었으나(1사무 24,4-16, 26,6-16) 해치지 않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못되게 굴었다고 해서, 나 역시 그를 미워하며 그 미움의 감옥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네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 주었는지 오늘 보여준 것이다.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 놓고 무사히 제 갈 길로 돌려보내겠느냐?”(1사무 18-21)

질투나 시기는 자연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더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이 삶에 동기를 주는 하나의 힘이 되게 하기도 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끌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한 질투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과의 만남부터 이미 자존감이 적어 보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계속 찾으려 돌아다닐지, 집에 가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짐을 치려고 합니다(1사무 9,5). 더욱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사울과 사울의 집안에 걸려있다고 말하자, “저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벤야민 지파 사람”이며, 자신의 가문은 벤야민 지파의 씨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다(1사무 9,21)고 합니다. 겸손의 표시일 수 있지만, 가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왕이라는 부담감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무엘과 번제와 관련하여 전쟁 전후로 갈등이 생기면서(1사무 13,9-14; 15,22-26), 하느님께서로부터 배척받고, 원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다윗에게 머무르며, 사울은 악령에게 시달렸다고 나옵니다(1사무 16,13-15). 사울은 단지 여인들의 노래에서 나타난 다윗과의 비교 때문만이 아니라, 자존감의 결여와 자신이 가진 왕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어 그렇게 심한 질투와 미움의 감옥에 갇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뺏긴다고 생각되면서 외로움까지 느꼈겠지요.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1사무 9,2)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힘센 용사”였으며, 가축들도 키우며, 종을 부리며 다닐 정도이니 세력과 재산이 있었던 가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다윗이라는 뛰어난 후계자가 있으니 반대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만도 잘못이겠지만, 열등감도 사울처럼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자신과 여러 상황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감사를 드린다면, 열등감, 질투, 미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박OO_출소자 지원 대상자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아침에 내리는 흰 눈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롤케이크와 크리스마스 카드가 담겨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늘 생각했던 아버지나 이모, 고시원 사장님을 생각하다가 ‘이 선물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라며 하느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도중 뜻밖의 한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자주 다니던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항상 옆드려 구걸하시는 걸인이었습니다. 평소 오고 가며 궁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저에게 그분을 생각하게 하셨고 미션으로 선물 말고도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라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롤케이크와 용돈의 절반을 그분과 나누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역에 도착해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인지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혹시 그분이 자리에 계실까 하여 선물과 현금을 봉투에 넣어 챙겨서 집을 나왔지만, 계시지 않았고 결국 선물은 지인들의 간식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지인 중에 한 분이 저를 잠깐 세우시며 챙겨주려던 선물이었다며 명인이 만든 안홍찐빵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에 계신 그분은 롤케이크보다는 찐빵을 좋아하시나’라며 찐빵을 드리기로 마음먹고 역으로 향했는데, 그분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제가 저분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짧게 기도한 후에 그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추우시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이거 교회에서 주신 건데 하느님께서 선생님 이거 다 갖다 드리래요. 하느님께서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제가 대신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분은 한참 눈을 감고 계셨는데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성경책이 있는 걸 보니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하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분이 입고 있는 옷과 깔고 있는 담요와 심지어 성경책까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분홍색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어쩌면 이분은 정말 사람에게 자
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분이었구나. 정말 많이 외로운 분이시구나. 안타까웠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안면 부위도 마비가 와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당연
히 일도 못 하게 되어 노숙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사랑하듯이 굉장한 자부심이 담겨있는 표정으로 가지고 계신 카세트로
트로트도 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대화 끝에 저는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
났고 다음에는 예쁜 분홍색 장갑을 하나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러 갔는데 오히려 많은 것을 받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방문을 하신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저의 방
문이었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기회를 주셨고 부족하지만 섬김의 기회
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롤케이크도, 아무리 유명한 명인의 찐빵으로도 배부르게 할 수 없는 배부름
을 체험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리스마
스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제 생애에 가장 기억에 남을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2020년 8월 ○○교도소의 추천으로 수용자 박○○ 형제님 아버지에게
매월 20만 원 불우수용자 가족 생계비 지원을 하였고, 수용 생활 중 녹내장이 발견되어 외래 진료로 약
물 치료만 받아오다 2023년 10월 출소 후 양쪽 눈 모두 상세 불명의 녹내장과 백내장으로 치료가 시급
하여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본인이 받은 사랑을 미션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
음으로 본인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은 살고자 약속하였고 크리스마스를 통해 어려
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2024년 4월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3차 정기총회 및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 일시 :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10:00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3차 정기총회
오전 11:15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카카오톡 채널

● 행사 알림

- 3월 4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3월 9일(토)~10일(일) 우장산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3월 12일(월)~13일(화), 15일(금)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1기 인성교육
- 3월 14일(목)~15일(금), 21일(목)~22일(금) 기쁨과희망은행 국군교도소 취 · 창업 교육
- 3월 25일(월)~29일(일) 기쁨과희망은행 안양교도소 취 · 창업 교육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1/16~2/15)

2024년 1월~2월에는 (주)스폰글로벌, 김경원, 김아가다 아가다, 김연희 카타리나, 김윤희 프란치스카, 남영미, 변정임 마르셀라, 서주현, 신대철 미카엘, 오 레지나, 이승현 안드레아, 이원옥 요셉피나, 이윤주 마리아고레피, 장세진 사도요한, 조인자 마리데레사, 채순자, 최순남 막달레나, 최원재 욥, 홍순희 루시아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강예원, 김정원 요셉, 박승자 마리아, 서순희, 여혜경 카타리나, 여현숙 율리아, 이가원 라파엘, 이소연 소화데레사, 이혜린 소화데레사, 조종현 나자로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 (02-921-5094)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7면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